

# 변호사가 보험사기 가담?

### 동부경찰 40대 입건 ... 강력 반발 속 사건처리 주목

경찰이 의사와 짜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변호사와 사무장을 입건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는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사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29일 허위 장애인 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게 해준 대가로 법률대리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서씨에게 권한을 위임한 뒤 법률대리 수수료를 배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변호사 B(4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허위 장애인 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C(47)씨도 허위 장애인 발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 15일 광주시 동구 C씨의 병원에서 알게 된 가짜 환자 D(27)씨를 대신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받게 해준 뒤 법률대리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등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 지인을 통해 척추질환 등이 있는 환자들을 소개받아 C씨의 병원에 연결했고 C씨는 이들에게 사고나 상해로 인한 장애인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000만 원 상당의 진단서 발부 비용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환

자들이 A씨가 사무장으로 있는 사무실 변호사인 B씨를 법률대리인으로 세워 1인당 1000만~70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B씨는 A씨가 받아온 법률대리 수수료를 배분해 가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왔으며 B씨 역시 A씨를 통해 C씨로부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C씨가 그동안 284명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점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B씨는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B씨는 “의사와 공모해 보험사기를 쳤다는 경찰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에서 조사만 하면 무조건 보험 사기냐”면서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사에 대신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 준 것이다. 내가 공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느냐”라고 항변했다.

B씨는 또 “경찰의 수사 관점이 잘못됐다. 경찰이 지난 1년간 수사를 해왔는데, (나를) 엮으려고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고 발표했다”며 “변호사가 보험사기를 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대상 선정 및 기소에 따른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닭은 것도 죄인가요? ...우치동물원 무플론의 '눈물'

### 큰뿔양의 죽음 숨기려 애꿎은 3마리 폐사시켜 거센 비난의 목소리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무플론.

광주 우치동물원이 동물 폐사를 결정하면서 무슨 병에 걸렸는 지, 치료는 가능한 지 등 정확한 검사조차 하지 않고 사육사의 자체 판단에 의존, 임의로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사 대신, 완치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치료한다는 다른 지역 동물원 방침과 전혀 다른데다, 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공공기관으로서 비윤리적 조치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9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여 간 병적 조사 없이 인위적으로 폐사시킨 동물은 삼살개(1마리)·일런드 영양(1마리)·들소(1마리)·무플론(3마리) 등 모두 6마리다.

해당 동물들은 질병 감염이나 부상 등 무슨 병에 걸렸는 지, 치료가 가능한 지 여부 등 정확한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사육사의 자체 판단만으로 폐사조치됐다.

현행 '전염병 발생으로 사육 동물 전체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염 동물을 도태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우치공원 동물관리 규정'(제9조·비상조치)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치 동물원은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멸종한' 동물들을 사육사 '육안' 판단에만 의존해 폐사시켰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1년 무플론도 전염병 감염 여부 등 정확한 병명도 모르는 상황에서 폐사시켰다. <광

주일보 8월 28일 6면>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전하게 사육해야 할 동물원이 멸종한 동물을 죽였다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또 우치동물원의 폐사 방침은 다른 지역 동물원과도 전혀 다른 상황이다.

서울대공원·대전동물원·대구동물원의 경우 동물의 질병 여부를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치료하

### 질병 확인 않고 폐사 들소·일런드 영양 등 최근 5년간 6마리나

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폐사를 시키는 우치동물원과 달리 완치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돌본다는 게 이들 방침이다. 질병을 앓고 있는 동물일 지라도 사육사의 판단만으로 동물을 죽이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간 이들 동물원에선 인위적으로 폐사처리한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동물 폐사 여부는 사육사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지난 11년 폐사 조치한 무플론의 경우 뇌출혈 증세를 보였으나 병적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무플론은 모두 14마리다. 사막 산악지대에 사는 무플론(소과)은 어깨 높이 1m 이상·몸무게 140kg 정도로 큰뿔양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큰뿔양도 소과로 사막 산악지대에서 산다. 수컷은 어깨높이 1m 이상·몸무게 140kg 정도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뇌물' 전 경찰관 항소심서 5년 →3년 6월 감형

### 성폭행 혐의는 무죄 선고

광주교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9일 형사사건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40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추징금을 64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줄였다.

박씨는 여성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에 재직하던 2008년 5월 19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안전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스시설 시공업자로부터 32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원심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나 UDT 출신, 아파트에 폭탄 설치" ... 비상출동하니 만취 男 횡설수설

## 허위신고에 '허탕' 112의 수난시대

### 광주·전남 올 597건

경찰의 처벌 강화 방침에도 112 허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접수된 112 허위 신고 건수는 531건에 달한다. 상반기 통계임에도 지난 한 해 접수된 전남지방청 전체 112 허위 신고 건수(550건)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도 올들어 같은 기간 66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경찰이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키로 했음에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박모(45)씨는 지난 22일 밤 광주시 남구 서동 J아파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나는 UDT 출신이다. 아파트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입건됐다. 박씨의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소방 인력만 20명에도 동원 차량도 10대가 넘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출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상습적이고 악역적 허위신고는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오천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200만원이고 경매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상담 후 결정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 참돔 보양식전문점

###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돔 요리: 토종 참돔탕 / 돔 청동오리 / 돔 삼계탕
- 한방 요리: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돔탕 (오브 식사소 포함)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욱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오탁** 062)515-5757(오탁오탁)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9-3 해피부병원 뒤(구,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 4원침 (8876)

김정원  
현직국회의원  
임수석

3년간  
관찰

내란  
음모?

그동안  
만하고...  
직유유기야냐?

대선개입으로  
바빠졌잖아  
말한다...

### 경찰 '귀태 현수막' 수사

광주지역 일부 공무원들의 을지연습 반대 유인물 배포와 일명 '귀태(鬼胎) 현수막 게재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을지연습 기간에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경위와 지난 21일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길에 게시된 귀태(鬼胎) 현수막의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양귀비는 마약" 재배 노인들 입건

○관상옹이나 통증약 용도로 양귀비를 재배해온

60세 이상 노인들과 농민 등 146명이 검찰에 적발.

○광주지검 강력부(정희열 부장검사)는 29일 경찰, 보건소·의료원 11곳과 합동 단속을 벌여 양귀비 재배사범 146명을 적발해 양귀비 8700여주를 압수.

○검찰은 적발된 146명 가운데 100주 이상을 재배한 65명을 입건해 처벌하고 50주 미만 재배자는 입건유예, 50~100주 재배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는데 60세 이상이 120명, 농업종사자가 102명에 달했다고 설명.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